



그런 새벽이라면 나는 바랄 게 없다

울산여자고 3-9 정예은

새벽을 싫어했다.

수학학원을 운영하시던 부모님은 고등학생 수업을 마치고 늘 12시가 넘은 새벽에야 귀가하셨다. 어린 시절 그런 부모님을 졸린 눈으로 기다리다 보면 어느덧 취침 시간을 훌쩍 넘긴 뒤였다. 그래서 키가 자라지 않았다. 언제나 정수리가 또래들의 턱 끝에 걸치던 나는 여전히 키가 작고 ‘십삼 가족’이라거나 ‘겹쟁이 강아지 커리지’ 같은 새벽 시간대 송출되는 애니메이션을 싫어하는 열아홉이 되었다. 그런 것들은 어두운 거실에서 홀로 텔레비전을 보던 나를 떠오르게 하니까.

생각해 보면 최근까지도 새벽을 싫어한 것 같다. 어려서부터 버릇처럼 늦은 잠에 들어서인지 나는 여전히 새벽에야 잠이 든다. 고치고 싶은데 쉽지 않다. 불을 끈 방에 가만히 누워 있다가는 이런저런 생각이 든다. 행복했던 기억보다는 아프고 슬펐던 기억들이 더 많이 떠오른다. 그러니까 아무도 내게 말을 걸어주지 않던 교실이라거나 पार्ट너가 없어 선생님께 배드민턴 짝공을 요청해야 했던 체육관 같은 것들 말이다. 특별히 괴롭힘을 당한 건 아니었다. 내 교과서를 부러 망쳐놓는 아이도 책상에 낙서를 하는 아이도 없었다. 단지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내 발표에 박수를

치지 않았고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새벽이면, 잠이 오지 않아 까만 천장을 바라보다 보면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던 때 같은 것들이 떠올라 새벽이 싫었다. 정말이지 싫어서…… 종내에는 나까지 미워졌다. 나에게 새벽은 나를 미워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시간이었다.

나는 늘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던 아이였다. 내가 말을 하는 방식, 그때 짓는 표정, 눈짓 같은 것들이 반드시 옳다고 확신하는 아이. 반대로 말하면 나와 상충하는 것들은 모두 틀렸다고 믿는 아이기도 했다. 왜 따돌림을 당했냐고 묻는다면 근본적인 원인은 나의 그런 확신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본다. 이 역시 나를 미워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했던 새벽의 시간 동안 생각한 결론이었다.

얼마 전, 재작년 같은 반이었던 아이가 내게 달라졌다고 했다, 좋은 방향으로. 너를 잃지 않으면서도 잘 사는 법을 배운 것 같다고. 사람은 자꾸 아파야 강해진다는 말을, 근섬유는 찢어지면서 단단해진다는 말을 조금 알 것 같았다. 그 애들이 나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따돌림을 당했어야 한다고 하는 게 아니다. 단지 나는 그때의 상처를 계기로 내 주변과 나 자신을 갉아먹던 생각을 거두게 되었다. 나와 상충한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는 걸 비로소 깨달은 거다. 그리하여 열아홉의 끝자락에선 지금, 나는 새벽마다 미워했던 모든 이들을 용서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내 자신까지 말이다.

열아홉 살이야말로 새벽과 가장 잘 어울리는 나이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스물이 되기 직전, 해가 뜨기 전의 새벽에서 있는 거다. 모두들 각자의 밤을 지나 어느덧 하늘이 푸르러지는 새벽에서 있다. 요즘은 얼른 자

라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더 배우고 더 자라고 싶다. 그러기 위해 더 상처받고 싶다. 더 실패하고 싶다. 사람은 자꾸 아파야 강해진다는 말을 조금은 실감한 나는 더 아프고 더 생각하는 새벽을 보내고 싶어졌다. 더 생각하고 반성하는 스무 살이, 서른 살이 되고 싶다. 그래서 나은 사람이 되는 게 내가 바라는 아침이다.

이제는 새벽을 좋아해 보려 한다. 그토록 울고 괴로워했던 시간도 사랑해 보려 한다. 내 서른의 새벽도 마흔의 새벽도, 그래 그러니까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을 때의 새벽도 그렇다면 더 바랄 게 없다. 어두운 밤에 묶여 있지 않고 해맑은 아침을 맞기 위해 나아가는 새벽이라면, 그런 새벽을 보낼 줄 아는 어른이 된다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그러니까 잊지 않을 거다.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을, 더 이상 스스로를 미워하며 버티기 싫은 마음을 오래 간직하고 싶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의 나에게 말하겠다. 부지런히 자라겠다고. 쉬지 않고 크겠다고. 그러니 부디 좋은 어른이 되어달라고. 그때의 나를 생각하니 정말로 더 바랄 게 없어졌다. 아, 웃음이 난다. 이 웃음을 오래오래 마음 안에 두고 싶다.